사도행전10

사도행전4:17-20

17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관원들이 이제 재판정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네들이 가르치지 말라고 한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냐 아니면 가르치라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공부한 어떤 헬라의 철학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그런것도 몰랐지만 세상적 학식 이라던지 여러가지 정보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득하는 방법으로 가르친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들은것을 가르쳤어요.

보고 들은것 이라는 건 기독교의 역사성을 가르친것입니다. 역사성이란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 복음이 역사속에 실제로 일어났다 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원속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가 요러요러한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야지 그러면 그것으로 완성이에요. 전지전능 하신 분이 영원속에서 시간과 공간 위에 있는 그런 영역 속에서 어떤 계획과 뜻을 펼쳤다는 건 그것 자체가 완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바로 그 복음의 현실이 actualizing 되어서 나타난 거에요. 구약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계속 율법이 주어지고 제사가 주어지고 여러가지 전쟁이나 포로기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왜 인간은 예수만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만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역사로 보여 주시는거죠 그쵸?

그래서 바벨론 포로나 앗수르의 공격 아랍의 공격 애굽의 공격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그게 복음의 실제화라는 거에요.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 자 이제 성전 문 닫자 그런다구요 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게 성전이에요. 있다가 저녁때 우리가 자세히 살펴 보겠지만.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삶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을 인간의 힘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인간들이 했죠. 그래서 그 성전을 닫아 다오 하고 이제 그 성전 그 옛 성전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만에 새 성전을 짓는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 그건 성전이신 자기 몸을 가르켜 하신 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진짜 원형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는가 actualizing 해서 설명하는 거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신약에서도 빛이 진리가 왔는데 죄인들이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배격해요. 쫓아 냅니다 못 박아 죽여 버려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쏟아 붓는 사랑과 은혜의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신약의 사복음서를 비롯하여 여러 서신서에서 계속 설명을 해 주는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그냥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눅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성경이 기록한 바는 전부 나에 대해 기록된 거다 그래요. 그때 성경은  뭘까요 구약이죠 아직 신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 조차도 그렇게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면 신약은 더할 나위 없죠 신약도 역시 예수에 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거에요.

근데 그렇게 제자들에게 여러가지 복음의 현실이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어졌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도 못 알아먹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죠? 혈루병 앓던 여인을 일으킨 것.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 여러분은 제가 다 설명해 드려서 아시겠지만 전부 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기적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돌아 가시기 전까지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곧 십자가에서 수난 받고 죽어야 돼 그랬는데 그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가 다른 제자들 다 있는데서 낯짝도 두껍게 우리를 영의정 좌의정 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나머지 열 제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했다 그래요. 싸운 거에요 자기들 끼리. 저것들 봐라 우리들 앞에서 저희들만 더 높아지겠다 하네. 그러니 예수님이 돌아 가실때까지 그냥 자기 자신에 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에요. 우리와 별반 다른 거 없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전부 나 자신을 우상삼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해도 부정되지 않는 본인에게는 부정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그러한 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그들이 겪은 일과 이렇게 연결을 하여 아 이게 이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거에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겪는 삶은 그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이 actualizing 실제화 되어져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지 왜 내 문제는 항상 이렇게 막힐까 왜 나는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병이 걸릴까 왜 나는 이렇게 망하지? 그 현실만을 바라 봐서는 안 되는 거에요.

여러분은 그 복음을 그대로 살고 계세요. 예수의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거에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계시를 받는 거고 그걸 통하여 여러분은 사도들과 똑 같이. 똑 같이 하나님께 받은 걸 전하는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도 열 두 사도 안에 넣어서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증인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하나님이 올라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가 써 놓은 책이나 누가 써 놓은 논문이나 누가 써 놓은 주장이나 이런 것들 그 사람이 뭐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 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부터 직접 주어진 바로 그 복음의 현실을 전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논리적으로 무슨 교리나 신학을 정립을 해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를 먼저 깨달으셔야 되요. 왜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줄줄이 꿰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도 사람들이 코도 찡긋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해석하는 눈이 아직 나에게 없어요. 그런데 무슨 뭘 전합니까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되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힘의 원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원리를 공격하는지를 체험하고 계셔야 되요 지금. 그리고 그 삶이 진짜 이게 패배의 삶이 아니라 저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고 이게 진짜 승리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야 되요. 그 때 진짜 전도가 나오는 거에요. 그 전도라는 단어 자체가 설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 설교를 하는 분이 되야 되는 거에요. 그 전도의 미련한 것 그 단어가 설교에요. 모든 인간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도들 처럼. 그 설교는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복음의 현실을 성경과 연결시켜 이게 바로 이러한 거구나 라고 깨달은 다음에 그 생생한 계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전도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힘들다라는 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가정이 희생해야 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의 나라에서 일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고생하죠 하루에 열 네시간 열 다섯시간씩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목사가 뭐 그리 대단히 고생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되요. 그리고 설교 원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십자가 설교를 하려면 적어도 일 주일내 8편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려면 그 설교가 그 사람의 몸에서 살아져야 되요. 하나님이 그렇게 검증을 한 다음에 단에 세우신다 말입니다.

사랑을 설교하려고 할 때는 사랑이 무언지 절절히 경험하게끔 그리고 얼마나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 라는 것을 폭로 시킨 다음에 올려요 인내를 설교할 때는 그 인내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었는지 를 경험하게 하고 올리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설교할 때는 그 분이 배신 당했던 그 배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것이었나 를 경험하고 올라가는 거에요 목회자는 그래서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 드려요 이 여기에 거지가 앉아 있다 할지라도 당신하고 나하고 삶을 바꾸라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나는 바꿉니다 당신이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하고 나하고 한 번만 하루만 바꾸어 살아 봅시다 라고 이야기 하는거에요.

마찬가지에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을 너무 경홀히 여겨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자요 증인이요 설교자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도 바로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그 삶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강력하게.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듣고 나에게 유익만을 챙기려고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나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새 창조에 기여를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나는 그냥 말씀을 계속 받아서 나는 이 세상에서 그걸 가지고 교훈 삼아 아니면 힘 삼아 남들에게 존경받고 평안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잘 살거야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니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겪으셔야 되는 거에요. 기독교는 Dynamic 이 있는 거에요. 역동적인 거에요 복음은. 논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 설교를 \*\*\* 이나 \*\*\* 인터넷 포털 사이트 있죠 그런데 가면 목회자들 하고 신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카페들이 있어요. 뭐 \*\*\*이라던지 \*\*\*있구요 회원이 천 명이 넘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전세계의 한국 목회자 신학생들이 뭐 여기에 유학 와 있는 독일 스코틀랜드 등 그런 신학생들이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모여요 그래서 신학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자주 안 들어가요 거기에. 왜냐면 공부를 너무 열심히한 사람들이 많아서 논쟁이 하나 붙으면 댓글이 수 백개가 달리는데 그게 다 내 의견이 옳다라는 argue 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런데 참여 안 하는데 어떤 신학생이 제 설교를 계속 가져다 올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계속 들었겠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고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라는 신학자들이 있으니까 평을 할거 아니에요 평을 하다가 결국에는 저에게 질문을 해 와요 그런 분들이. \*신학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당신의 설교는 insight 가 있다 그런데 어느 책에서 보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 거냐 라고 묻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사고는 예전에 아주 훌륭한 신학자들이 설교를 해 놓은 그 테두리가 아니면 이건 불안하다 라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에요 왜. 복음이 자기의 삶으로 살아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쓴 루이드 존스의 이론이냐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론이냐 게할더스 보스의 이론이냐 아브라함 크라이프의 이론이냐 할만 바뱅크의 이론이냐 이런 것을 어디서 보고 한 거냐를 묻는 거에요 저한테. 내가 참고 하는 책은 딱 하나 밖에 없다 성경. 당신들이 말하는 그러한 훌륭한 신학자들은 나도 한 때 내 영적 스승으로 삼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한 분 들이 맞다 그러나 그들이 써 놓은 책이나 논문은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신학이며 내가 설교를 할 때 적어도 저는 초창기에 설교 할 때 그런 책들을 두루 두루 정말 지금보다도 몇 배는 더 연구를 하고 짜집기를 해서 제 설교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시간이 오래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일단. 초보 설교자가 자기 것을 내 놓아서는 안되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그 사람들 것을 하나하나 내가 갖게 되면 아 이제 나한테 신학의 울타리가 생기게 되는 거에요 그리고 그 울타리 속에서 이 성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는 이제 내 몫 이란 말입니다 그 때 설교자는 성경 66권을 머리 속에 떠 올려놓고  그리고서 오늘 내가 설교할 본문의 이야기를 그 성경 66권 안에 들어있는 구절들을 하나 하나 찾아내고 꿰어서 그걸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은 말씀은 어떻게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설명을 하면 되요 그런데 그걸 어느 책에서 보고 한 거냐고 묻는 건 아직도 자기는 권위있는 신학자나 권위있는 목회자의 그런 이론 그것만 거기 안 에서만 안전하게 전하고 배우고 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 전체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은혜 라는 주제로 꼭 붇들고 하나로 꿰맬 수 있는 실력이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다른 참고서 볼 필요가 없어요

요한 웨슬리가 어마어마한 독서광이었습니다 이 십살 때까지 읽은 책이 삼 천권이 넘었으니까. 근데 요한 웨슬리가 회심을 하고 요한 웨슬리는 평생 책 한 권 밖에 안 읽었어요 성경. 사도 바울은 베드로나 요한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 텔레스나 소크라테스 같은 헬라의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구요 아데네에 가서 실지로 그들이 거기에 있는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흔히 논쟁의 주제로 내 놓았던 철학적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도 있잖아요 엄청 깨졌죠 그런데. 그래서 갔다 와서 한 말이 뭐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외에는 다른 것은 다 쓰레기처럼 여기겠다 한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아요 그 다음 부터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야기 했어요 내가 십자가 이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그냥 뭐 신문에서 본 이야기 영화 본 이야기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진짜 \*\*\*에 있는 분인데 굉장히 존경받는 신학자였고 교수였고 지금 거기서 큰 교회 목회를 하는데 소설책 가지고 설교를 해요 \*\*\* \*\*\* 신경숙의 소설을 가지고 6편의 설교를 하더라구요 \*\*\* 가지고 몇 개의 설교를 하고…

그런 것들은 설교의 주제가 될 수 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전부 스크랩을 하다가 야 이런 진리가 있어 그러고 흥분을 해요

우리 사도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명석한 사도 바울조차 아볼로 같은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계시 해 준것만 을 전했어요 삶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말에 졸 하고 미련한 자 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요 왜.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철학이나 아니면 자기가 배웠던 학식같은 거 내 놓으면서 다른 이들과 논쟁을 하고 또 설교를 할 때 그런것 들을 적당히 섞어서 썼으면 미련한 자라는 소리 절대 듣지 않습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 였다니까요 그 사람이 ㅇㅇ의 샤마이님을 하나로 통합한 철학으로 따지면 칸트같은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 그 사람의 수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이론 같은것을 몰랐겠어요 플라톤은 뭐 대단한 사람이였는지 아세요 레슬링 선수였어요 그리스 헬라에서 가장 유명한 레슬링 챔피언이였어요 뭐 그리 대단히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 더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거에요 그리고 열심도 있었고. 그런데 미련하게 매일 똑 같은 얘기만 한 거에요 녀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인데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 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오신 말씀이신 그 분이 너희들에게 맞아 죽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다 해결이 되었고 또 그 분이 그 사신 의가 너희에게 전가 되어서 너희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야 그걸 믿기만 하면 돼 더 이상 너희들은 율법이나 제사에 묶여있지 않아도 돼 맨 똑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할 말이 저렇게 없나 그래서 말이 졸 하다 그래요 말을 더듬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와 예수만 전하니까 말이 둔한 거에요 그리고 미련하다 취급을 받았어요 왜.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거 가지고 또 어떤 철학적 지식 세상적 인문과학적 사고 다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졸 한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초대 교회가 성장해 나간 겁니다.

그런 거에요 여러분 설교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 적 정보의 전시장이 되어서는 안 되요 어렵고 힘든 단어들을 막 나열한다고 해서 저 목사님 참 똑똑해 참 공부 많이 했어 이리로 가면 안 되요 그 입에서 예수가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십자가가 나오는 지를 보셔야 되는 거에요 그거 이 외에 다는 것은 복음 아닙니다 다른 정보는 책을 읽으세요 좋은 video 들 많으니까 그거 보세요 교양 video 같은 것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특히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 들이 다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어서 교회 목회도 하고 신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무슨 현대 설교자들의 설교를 비판하는 책도 써 내고 설교는 이러이러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것들을 다 베스트 셀러로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거를 비판하면 그게 다 옳은 줄 알아요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게 그 \*\*\*목사라고 \*\*\*아카데미 그 양반은 책을 두 권을 냈는데 그 양반은 조직 신학자에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말은 안 하죠 거기는요 예배가 끝나면 장로님들하고 목사하고 앉아서 식사 시간에 동동주를 따라 마셔요 자유하는 거죠 그건 만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삶 속에서 예수라는 본을 좇아 깨끗하게 살면 된다 이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다른 한국의 \*\* 목사들을 비판한 그런 책을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개혁자인 줄 알아요 신학생들 조차도..

그 양반이 비판했다는 책을 제가 비판해서 그 사람 웹 사이트에 올렸어요 당신의 설교는 이 사람들의 설교의 발톱의 때 만큼도 안된다 라고 아주 난도질을 했어요 왜냐면 예수가 없어요 적어도 신비나 기복을 외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기본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어요 그게 예수와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열심히 몸을 수련하고 정신을 수련하고 공부해서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 받으며 잘 살자 그게 무슨 성경 해석입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해요 삶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사시면서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되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찾아 오는가 절대 멍하니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 오실때 쯤이 되면 뭐 대단한 징조라도 보일거라고 생각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노아의 때 처럼 온다고 했어요 그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에 가서 밭도 갈아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그래서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잖아요 그 때 불현듯 내려온 게 저주의 홍수 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삶이 언제 닥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오늘 돌아 가시다가 무슨 사고를 당해서 이제 경황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자체 그 날이 심판이거든요 영원 속에서는 시간의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있으시냐구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나는 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지를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의 경험과 체험과 여러분의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절대 천국 못 들어 갑니다 그 복음을 열심히 사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이 들에게 나를 향했던 사랑을 어떻게 옮길까를 고민 하면서 그게 안 될때 엎드려 기도하며 사는 거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 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사는 거라고 복음은 경험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을 증거 하는 것을 전도요 설교라고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그 복음 그것을 살기 보다는 그냥 그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이 다 사라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편안한 삶 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참담한 현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허락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